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

이사야 43:18-19, 마가복음 2:1-12

최정웅 목사님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다.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또 삶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습관은 자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배후에 있는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적 상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아주 오래 각인된, 또 뿌리내린, 체질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대부분 복음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복음과 안 맞는 것이 거의 다다. 훨씬 많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각인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것이 오랫동안 뿌리내려져서 자기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체질이 되어서,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 오래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을 찾아내고 갱신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마가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나라 전체를 돌아봐도, 많은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정말 되었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도 다 받고 계실 것이다. 계속되는 비극적인 사고와 위기를 막고 재앙을 막으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빨리 바꿔야 한다. 교회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1.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오래된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에는 차례대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오래된 것 세 가지가 나온다. 혹시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찾아보고, 발견하고, 반드시 갱신하도록 응답받는 한 주님이 되기를 바란다.

(1) 첫 번째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운명이다. 오늘 본문 막2:1-12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 당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사람이 아무 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어느 날 찾아오는 질병과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다. 삼성과 애플은 그렇게도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나? 그런데 삼성 회장은 질병으로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다. 애플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못 이기는 것이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다.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도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운명을 바꿔야 한다. 재앙의 상태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재앙의 상태 속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2:1-3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 히물과 죄로 죽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반드시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2)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13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진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종교의 뿌리다.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이다. 막2:16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다. 어찌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야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18절에는 ‘어찌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건다. 이것이 자기들의 종교, 전통, 관습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하는 것이다. 태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는 왜 그렇게 안 사느냐고 하기 쉽다. 그게 종교고 잘못된 율법 의식이다. 갈6:1에서는, 혹시 잘못된 사람을 보거든 시비하고 비난하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너도 그리 될까 조심하라.” 너를 살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는 완

전한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도널드 트럼프가 빌딩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시비를 하더라. 왜 목사가 좋은 차를 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차를 타야 하는데? (웃음) 어떤 분은 그러더라. “저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요?” “목사님은 르망을 타시니까요.” 아니, 목사는 티코 타고 르망 타야만 존경받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런 존경 받는 대신 에쿠스 타면 안 되나?’ (웃음) 그런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오늘 밤에 탄자니아에 가는데, 그런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40평 아파트에 살지 말고, 아프리카 가서 소풍, 말뚝으로 지은 집에 살아야 한다. 그게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다.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으라고 하셨다. 단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뱀눈을 해 가지고 여자에게, (웃음) “에이, 바보야.” “왜?” “그것 하나가 여기 있는 모든 과일보다 더 좋은 거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자기가 타락했던 주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속였다. “그래?”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이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먹어 버렸다. 바로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도 있었다. 건강하게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것은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동산을 둘러서 지키게 했다. 왜 속는 소리, 나쁜 소리에는 그렇게 쉽게 속하고 빠져들어가지는지 모른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수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좋은 집을 마련하면 너무 기쁘다.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더니, ‘이것들,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흠뻑은 것 아니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민족의 정말 못된 질병이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다. 잘난 사람은 자꾸 뭉개서 없애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원수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못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종교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경건하고, 의롭고, 훌륭한 것 같은데,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종교 체질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딱 차 있었으니까, 결국 멸망을 못 막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도 심겨져 있는 것이다. 복음 아닌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종교 사상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서 망하게 된다. 복음 아닌 종교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옆의 사람이 굶어죽는데도 나 혼자 잘 살리는 말이 아니다. 여기 오금동에 처음 왔을 때인데, 그때 이 동네는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였다. 비가 오면 얼마나 질척거리는지 모른다. 하루종일 심방을 다녀도 라면 하나를 끓여주는 집이 없었다. 그래서 심방대원 권사님과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 끓여먹고 다시 심방을 다녔다. 심방현금 할 돈도 없는 가정이 태반이었다. 겨우 현금을 하는 가정에서는 천 원 하고 그랬다. 그것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그럴 정도여서, 전의 교회에서 선물로 주었던 새 구두는 차마 신을 수 없어서 현 신만 신고 다녔다. 우리 교인 절반 이상이 컬러TV를 보기 전까지는 나도 컬러TV를 보지 않았다. 교인 2분의 3가 볼 때 비로소 나도 컬러TV를 보게 되었다. 집사람 친척이 와서 ‘어떻게 아직도 이런 것을 보느냐’ 하면서 데리고 가서 청계천에서 사온 16인치 컬러 TV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 못 보고 지나쳤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 있느냐 하고 토라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왜 목사에게 사례를 많이 주느냐’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다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 중에 몇 년 만에 겨우 나오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된다. 정말 뛰어넘으시기 바란다.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전통,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두면 안 된다.

(3) 세 번째 바꿔야 할 것이 있다. 막2:23-28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 왜 안식일에 길 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하는 것이다. 밀 이삭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이니까.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충마다 자동으로 서더라. 안식일에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를 던져 버리시기 바란다. 막3:1-6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일을 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자기는 다 지키고 살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된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체질이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만 깨끗한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막3:4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나, 죽이는 것이 옳으나' 하신 것이다.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렵게 된다.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부분을 완전히 뒤집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야, 문 닫아!” 하는 것과, “야, 저 문을 좀 닫아줄 수 없겠나?”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말을 너무 율법적으로 한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어떤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부르는 것이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어머니가 빨래를 중단하고 대답해주었다. “야, 그건 개미라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묻는다. “이건 뭐야?” “그것은 개미라는 거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 질문을 일곱 번이나 하더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엄마가 빨래를 멈추고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 주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답답해서 이야기했다. “여보시오, 애가 그렇게 똑같은 것만 묻는데, 뭐 하러 일일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냥 빨래부터 하시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물어보는 것에 엄마가 대답을 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겠습니까.” 찰스 웨슬레와 그 어머니 수산나의 이야기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저리 가! 지금 뭐 하는지 안 보여! 엄마 지금 빨래하느라 바쁘잖아!” (웃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렇게 자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나중에 영국을 변화시켰고, 시대적인 찬송들도 많이 남겼다. 오늘날까지 그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 제발 율법으로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멸망 받을 삶을 오늘로 청산하자.

2. 그러면, 이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막2:1-12에 보니까,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응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1)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다. 자기를 자꾸 생각해야 한다.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보면 자기를 비취 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꾸 상대방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시비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된다. 어지간하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좋게 보인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위대한 인간이 나온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와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속에서 살아간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니까 당연히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저주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인간 문제의 당연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내게 문제가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참 길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제압하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처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

가? 막2:10에 보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막2:17에는,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사람이 오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는 법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이름으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3) 세 번째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친구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친구의 중풍병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께로 가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집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딱 차 있는 것이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낸 것이다.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올라가 보았다. 율법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집 옥상에 올라가 보았더니, 지붕쪽에 연통이 있고, 그 근처에서 뚜껑을 열면 지붕이 열리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뜯어서 열고는 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채로 줄로 매달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죄 사함을 받고 질병도 치유된 것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다가 속지 말고, 복음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절대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산업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대로 보라.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라. 남이 모르는 것을 하라. 남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남이 못 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백열등을 발명할 에디슨은 천 번 이상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3천 번을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발명왕이 된 것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죄 사함을 받고, 질병은 즉각 떠나갔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성이다. 오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오래된 실패의 각인을 무너뜨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결론을 내리겠다. 오래 각인된 뿌리, 체질 때문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오늘부로 그만두어야 한다.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 축복을 향하여 갱신하고 변화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가 되기를 앙망하라. 막2:22에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을 새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옛날 부대에 담으면 이게 지극부대라서 다 터져 버린다. 새 포도주와는 안 맞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감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아닌 오래된 것을 빨리 버려라. 복음 아닌 바리새인 수준의 옛날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버려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 오직 복음이 아닌 해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매일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충만을 받으면, 주님은 베드로를,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김익두 목사를 바꾸신 것처럼 나도 바꾸실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축복된 한 달을 사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